



점거 파업을 사수하자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기적을 만들어 온 투쟁”(김경욱 위원장)이 또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 파업의 거점으로 다시 탈환한 것이다. 그동안 불매운동의 효과로 한산하기만 했던 뉴코아 강남점은 7월 29일 새벽에 갑작스레 ‘손님’들로 붐볐다. 이랜드 사측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나 ‘손님’들은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점거를 시작했고 5분만에 강남점은 다시 ‘노동자의 해방구’가 됐다!

7월 20일의 경찰력 투입과 강제 해산으로 뉴

코아·이랜드 투쟁을 잠재울 수 있다고 봤던 노무현과 박성수의 꿈은 여지없이 박살났다.

경찰력 투입만이 아니었다. 노무현과 박성수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온갖 악랄한 짓거리를 저질렀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을 구속했고,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해 이남신 수석부위원장과 이경욱 부위원장까지 추가 구속했다.

점거·농성·시위·현수막 부착·유인물 배포·피켓 시위 등을 할 때마다 노조는 1천만 원, 조합원은 1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렸다.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49명의 통장에 1계좌당 1억1백만 원의 손배가압류까지 걸었다. 겨우 50~1백만 원이 들어있는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통장을 가압류한 것이다.

매장 봉쇄 투쟁 때마다 경찰과 용역강패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여성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했고, 박성수는 주요 일간지 1면 광고도 모자라 주요 전철역에서 아침마다 수만 장의 거짓투성이 홍보물을 뿌리며 노동자들을 비방했다.

이처럼 노무현과 박성수는 뉴코아·이랜드 투쟁을 짓밟아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

» 뒷면으로 이어짐

이라는 불씨를 끄고 비정규직 확대·양산 정책을 유지하고자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은 “비정규직 고용[은] ... 과거보다 더 필요하다. 부담없는 비정규직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경찰력 투입과 악랄한 탄압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지를 더욱 단단하게 했을 뿐이다. 불씨를 어설프게 끄려다가 온 사방으로 불씨를 퍼뜨린 것이다.

홈에버 순천 조합원은 경찰력 투입 이후 “오만가지 심경으로 한참 울었다. ... 한참 지나서 한가지 생각뿐이 안 들었다. 정말 이랜드는 사람도 아니다. 한번 해보자. 목숨걸고 하련다”고 했다.

더구나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연대 의식을 심어주었다. 울산의 전교조 조합원은 “나는 당신들의 당당함에 질식할 것 같다. 당신들의 흔들림없는 동지애에 가슴이 아리다. 내가 그런 당신들과 함께 있다는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 없다”고 했다.

연대는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의 안 포르스텐보리 국장은 2만5천 달러의 지지금을 전달하면서 “UNI 산하 1천5백 만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했다.

이같은 강력한 투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공동 투쟁을 벌이며 뉴코아 강남점을 재점거했다.

다시 노동자의 해방구가 된 뉴코아 강남점에서 ‘기적을 만들어 온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합시다

- 파업 지지 행동에 동참을 조직합니다
 - 매일 강남점 앞에서 열리는 오후 4시 민주노총 집중 집회와 7시 촛불 집회에 참여를 조직합니다.
 - 점거 파업 사수를 위해 강남점 앞에서 24시간 유지되는 농성 대열에 함께 합시다.
 - 파업 지지 성명을 냅시다.
 - <한겨레> 생활 광고에 파업 지지 광고를 냅시다.
 - 노조 홈페이지(<http://www.elandtu.or.kr/>) 게시판에 지지와 연대의 글을 올립니다.
- 파업 지지 기금을 모금합니다
 - 신한은행 212-11-013939 박윤관
-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2001아울렛 불매운동에 동참합니다.
-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냅니다.
 - 이랜드 본사(02-323-0456 회장 또는 대표이사 교환 요구)
 - 박성수 ssp@eland.co.kr

“꼭 승리하기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끌려나오는 한이 있어도 내 발로 이곳을 나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아니 승리하기 전에는 절대 이 매장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 경찰과 구사대에 짐승처럼 끌려나갔던 우리는 자본과 정부의 물리력도 굳건한 투쟁과 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승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 850만 비정규직의 절규가 멈추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동지들의 마음 하나하나, 발길 하나하나가 우리를 지지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기필코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경찰력 투입 이후 점거 파업이 중단되면서 홈에버 대표이사 오상훈은 교섭 자리에도 나오지 않으며 배짱을 튕겼었다.

따라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다시 점거 파업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점거 파업은 박성수의 돈 줄을 막고 여론의 집중을 받으며 연대의 초점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이 투쟁에 대한 밑바닥 지지 여론은 여전히 높다. 자발적인 불매운동 동참의 여파로 지난 달 뉴코아·홈에버 매장들의 매출은 20~30 퍼센트 정도 줄었다.

그러나 박성수와 오상훈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오상훈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여기서 노조에 굴복하면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우리가 경영계 대표가 된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표

저들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기업주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버티는 지금,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강남점 재점거에 대한 전국적이고 강력한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이 투쟁에서 지면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깃발을 내려야 한다”고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정말이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학계, 종교계, 보건의료 등)는 강남점 점거 파업의 사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서비스연맹 지도부가 분명히 점거 파업을 지지한다면 최선을 다해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두 지도부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나오고 있다.

우선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강남점 앞에서 열리는 점거 파업 지지·사수 집회에 참여해야



한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공동대책위 등 주요 단위들이 강남점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을 하며 계속 연대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데 당연히 적극 수용해야 한다.

5백여 명의 용역강패와 수천 명의 경찰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이런 절실한 연대 호소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7월 20일에도 연대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밤을 새고 대부분 철수한 틈을 타서 경찰력을 투입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과 주요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이런 행동들에 조합원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인 연대 파업이 힘들다면 적어도 연맹이나 지역 차원의 연대 파업이라도 호소하고 건설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노동조합원, 학생, 단체 활동가들도 자신이 속한 노조, 학생회, 단체 등에서 더 크고 강력한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과 노력, 시도들을 해야 한다.

노무현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등 때문에 휴가를 반납하고 비상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휴가를 반납하고 최선을 다해 연대를 건설하자.